

거의 여자들이다. 분진, 소음, 진동, 중금속, 유기용제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사정은 모스크바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와실리섬은 페터스브르크의 여러 섬중 가장 큰 섬이다. 포구 가까운 곳에 3,000년 전의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산 스펡크스가 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6,400불에 사들인 것이다. 스펡크스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기원을 하면 소원을 이룬다기에 나는 오늘저녁에는 쓰리고에 피바가지를 썬을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스펡크스는 내소원을 외면해 버렸다.

버스안에서는 각자가 준비해 온 간식을 나누어 먹었다. 뒷좌석에서 노래소리가 들린다.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원광의대의 황인담교수다. 이분이 ‘옥경이’를 부를때 간드러지게 넘어가는 목소리는 그냥 들을수가 없다.

1731년에 완공된 페터대제의 겨울별장은 헤르메테이지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그 큰 규모와 웅장함에 다시 한번 입을 벌렸다. 엷은 녹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외모가 더없이 아름답다. 그림을

전시한 복도의 길이가 자그마치 24km에 이르고 그림 한장을 보는데에 1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소장된 그림을 다 보려면 11년이 걸린다고 하니 과연 세계 3대 미술관 중의 하나임에 손색이 없다. 그 많은 그림을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훑어 보았으니 무엇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거친 파도에 난파되는 배의 그림 앞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 얼간이가 보아온 그림중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 모나리자의 그림보다 몇배나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소리를 하면 무식하다고 욕을 먹겠지? 그리고 그 술한 그림중에서 산을 그린 것은 한점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그림은 태반이 산인데 여기에는 왜 없을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없이 이곳에서는 산을 대할수가 없으니 산을 그릴수 없었다고 생각해 두자.

겨울별장에서 멀지않은 곳에 나폴레옹 침입때 승리한 웅장한 동상이 있다. 안선기 왈,

“저 동상앞에서 사진찍을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요. 지지하고 점심이나 먹읍시다.” ♣

모스크바에서 들은 이야기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부 지부장
김 돈 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는 메트로(지하철), 버스, 트롤리버스, 트램바디(전차) 등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이 훌륭히 발달되어 있어서 개인의 교통수단으로,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처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 볼수는 없었고, 고급 개인교통수단인 자가용승용차로 소련제의 모스크바 비치를 비롯하여 외제 승용차들이 물밀듯이 달

리고 있는 것이 모스크바에서 볼수 있는 광경이었다.

자가용승용차의 소유주는 북경에서는 체육인·예술인들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모스크바에서는 크게 전(前) 공산당 간부들과 신흥마피아조직의 두계층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모스크바 시내를 관광하다 보면 도로변 으스한

곳에서 군용트럭이 민간차량에게 휘발유를 유출하고 있는 현장을 흔히 목격할수 있고, 러시아 관광공사의 안내자들이 관광객들에게 입버릇처럼 도난방지를 주의시키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던 공산사회가 자유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과도기의 러시아에서 볼수 있는 한 단면들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다.



모스크바 대학을 배경으로

공산사회에서 지난날, 사유재산을 축적할수 있었던 계층과 새로이 불법적으로 빠르게 부를 축적할수 있는 신흥조직들이 여유있는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수 있다.

소련을 곰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계'에 비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외국기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계'라는 동물은 외각은 단단하고 튼튼한 껍질로 보호받고 있지만(엄격한 정치적·경제적 통제체계) 그 내부에는 유연한 물질(비합리적·비효율적인 것)로 가득 들어 차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소련의 기업이나 농장 책임자들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매상을 높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 감독기관으로부터 기업과 농장의 생산능력을 얼마만큼 낮게 인정받는가에 있다고 한다.

기업이나 농장 생산능력의 100%를 정확하게 상부감독기관에 인정받는 기업이나 농장책임자는 무능력한 실격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인정에 따라 엄하게 생산목표지정이 하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여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능력의 70%가 인정되어 이것에 따라 낮은 생산목표지정이 하달되면 이것을 달성하기는 용이한 일이며, 조금이라도 초과달성하면 장려금을 받게 되고 또한 남는 생산품도 있게 되어 책임자는 이것을 유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수도 있으며, 유능한 책임자로 인정받기도 하고, 또 부도 축적할수 있으니 책임자인 공산당 간부는 잘살수 있는 계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련의 기업들은 뒷거래 경제의 물자조달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고 한다. 원자재나 기계, 부품 등 각종 자료를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뒷거래로 조달하여 주는 복덕방과 유사한 알선조직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련과 같은 통제경제하에서는 필요로 하는 자료가 언제나 필요시에 곧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것을 보충하여 주는 조직이 필요하였으므로 필요시엔 언제나 이 알선조직으로부터 자료를 공급받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률을 피하여 이렇게 통할수 있는 소련식 행동양식은 궁핍한 조직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지혜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현재 러시아에서 출현하고 있는 마피아란 범죄조직은 지난날의 알선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수도 있을 것이며, 이들이 매춘, 달러장사, 외국상품의 뒷거래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것이 새로운 부유층, 자가용차량의 소유자로 등장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런지 모를 일이다. ♣

